

광주시, 수도권 편중 '엔젤·스타트업' 유치 본격화

'엔젤투자 컨설팅 & IR 50 CAMP' 창업 스타트업 20개팀 참여 1대1 집중코칭·멘토링 실전 노하우 전수...전국 투자유치 성과

광주시가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엔젤·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엔젤투자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Start Up·신생 창업기업)에 초기 투자하고 성공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엔젤투자 금액(2018년 기준)은 수도권 81.6%, 비수도권 18.4% 등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엔젤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광주 상무지구에서 엔젤투자 확대와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엔젤투자컨설팅&IR(Investor Relations·기업소개, 투자유치 행사)·FIFTY CAMP(50시간 교육을 통한 50억 투자유치 도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 등 비수도권의 엔젤·스타트업 투자유치 실적 저조 원인으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없는데다 엔젤투자자 인식·발굴을 위한 시스템 부재, 초기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간 네트워크 단절 등이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행사는 엔젤투자 지원 전문기관으로 광주에 들어선 '호남엔젤 투자허브'를 중심으로 광주지역 스타트업 대상 투자유치 노하우 전수를 비롯한 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 생태계 구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행사에 참가한 광주지역 스타트업 20개팀은 2박 3일 동안 1대1 집중 코칭과 멘토링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실전 노하우를 전수받은 뒤 전국에서 찾아온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실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전문 투자자 중 상당수가 광주에서 활동 중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지역 스타트업 등에 대해 씨드투자 등 구체적인 초기 투자 의사를 밝히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행사 특강 강연자로 나선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



광주시와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상무지구 유담호텔에서 광주 엔젤투자 확대와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하 회장은 "광주는 인공지능 등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착하는 등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창업에 나선 스타트업에겐 좋은 기회이며, 전국 투자자들도 분명히 반응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는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인공지능 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엔젤투자자와 다양한 영역의 광주지역 창업자가 만나 모두에게 유익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귀어 희망 도시민들 온라인으로 만나요"

전남도·귀어귀촌지원센터, 18~20일 '귀어 스몰엑스포' 개최

전남도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는 수협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18일부터 20일까지 귀어 희망 도시민과 온라인으로 만날 '제4회 전남 귀어스몰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19로 대규모 인원의 집합이 어려워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전남의 다양한 어촌을 영상으로 접할 수 있으며, 어촌계장 및 우수 귀어인 등과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면담하는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는 스몰엑스포 누리집(<http://jnsmallexpo.kr>)을 개설했다. 누리집에서는 여수, 순천, 보성, 영광, 해남, 장흥, 강진, 고흥, 함평, 진도 등 10개 시·군 29개 어촌계 현황을 비롯 주민들의 귀어 유치 의지, 특산물 및 빈집 소개 등을 영상으로 제공하며, 시군별 귀어귀촌 지원 정책 등도 소개한다.

엑스포 참가자들은 우수 귀어인과 귀어귀촌 전문가, 어촌계장 등을 상대로 상담과 함께 설문지를 작성하면 모바일 설문권, 도시민 직거래망인 '바이씨'의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이번 엑스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전남 어촌에서 3박4일을 지낼 수 있는 '제2차 전남어

촌탐구생활', 한 달 간 전남 어촌에서 머물며 현장 체험할 수 있는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 등의 프로그램 참여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또 이번 엑스포를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전남 어촌마을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성공 귀어인들의 영상도 제작했다. 이와 함께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도시의 귀어 희망 도시민 1,200여 명에게 초청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모바일 SNS 등을 활용한 홍보도 펼쳤다.

전남귀어귀촌센터에서는 지난 2018년 장흥에서 제1회, 2019년 목포에서 제2회 귀어 스몰엑스포를 개최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택트로 진행하고 있다. 스몰 엑스포를 통해 귀어귀촌에 성공한 도시민들은 현재까지 30여 명에 이른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밀레니얼세대 공직생활 적응 돕는다

신규·실무수습 공무원 대상 '나침반 사내 대학' 운영

광주시가 밀레니얼 세대 등의 공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공직생활 나침반 사내 대학'을 운영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 신규·실무수습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내대학 프로그램 '공직생활 나침반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신규·실무수습 공무원의 공직사회 초기 적응과 성공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8일부터 22일까지 2021년 하반기 신규임용 공무원 및 실무수습직원 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과정은 하반기 신규임용 새내기 직원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자의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소통협력강화 ▲실무능력향상 ▲자기주도력 함양의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소통협력강화 과정은 신규 직원들의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조직 구성원 간 갈등 해소방안을 도출하고, 세대 공감과 조직 이해를 도모해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제시한다.

실무능력향상 단계는 설문조사결과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회계·계약 실무, 보도자료 작성법, 공문서 작성법과 사회초년생인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민원응대요령 등이 포함됐다.

자기주도력 함양교육은 '시장의 답은 현장

에 있다'는 민선 7기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현장체험 학습을 편성하고, GGM자동차공장 견학,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 등 자율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배치했다.

김중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공직사회에 밀레니얼 세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공직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세대 간 소통과 공감 마당 교육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직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육성 으뜸인재, 전국체전 금빛 성과

역도 조민재·롤러 스피드 이유진 등 5명, 메달 12개 획득

전남도가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으뜸인재들이 14일 폐막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빛 성과를 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전국체전에 체육 분야 으뜸인재 12명이 출전했다. 이 중 5명이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전남체육과 조민재는 전국체전에 처음 출전해 역대 61kg급 인상·용상·합계 1위로 대회 3관왕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역대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다.

여수충무고 이유진은 롤러 스피드 1천m O.R과 스피드500m+D에서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스

피드300m계주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스피드500m+D에서는 47초629를 기록해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전남미용고 나운서는 자전거 단체스프린터, 경륜, 4km단체추발에서 각각 금·은·동메달을 휩쓰는 저력을 보였다.

순천매산고 김명진은 소프트테니스 개인복식에서 은메달, 여수충무고 김민섭은 수영 자유형 1천500m와 수구에서 각각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외에도 전남체육고 김예슬(사격), 순천여고 손예령·남수현(양궁), 광양하이텍고 장수찬(육상), 광양

여고 김가연·정다빈(축구), 함평학다리고 강경민(레슬링)은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큰 활약을 펼치며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했다. 전남도는 매년 으뜸인재 발굴대회를 열어 자연과학, 공학, 인문사회, 클래식, 미술, 체육 등 10개 분야에서 지역 미래를 이끌 으뜸인재를 발굴해 선정한다. 현재 186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체육 분야 으뜸인재가 큰 성과를 낸 것처럼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통해 육성한 으뜸인재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기치 아래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경기도 파주에 투자
3억5천만원
 하실 분, 2분 모십니다
 대지 2007㎡(607평), 시세 24억
 2~3년 후 매가 40억 정도 확산
 아파트/빌라 신축 예정 부지
 문의.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1) 40평(전용) 2억5천 (용1억) 보1천 월100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2) 60평(전용) 4억5천 (용3억) 보2천 월200	장성담 (호) 2분, 장성 IC. 5분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사무실 리모델링함, 바,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010-6670-9800